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주요 종교간 ‘평화’ 및 ‘통일’ 활동  
관련이슈 비교 분석

염창훈  
(경희대 경영학과 석사과정)

〈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평화 및 통일 이슈에 대하여 주요 종교별로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언론에 노출된 소식에 대한 네이버 뉴스 중심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간대별, 언론사별, 그리고 종교별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세 종교와 연관되어 평화 또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기사 제목에 포함된 기사만을 추출한 결과 총 111,578건 - 기독교 52,452건, 천주교 34,935건, 불교 24,191건-의 기사를 수집하여 말뭉치를 구축할 수 있었다. 말뭉치를 기반으로 빈도수, 주제별 키워드, 긍부정성을 비교하였다. 그동안 빈도수로는 기독교가 월등하게 많이 평화 및 통일 담론을 이루어왔으나 언론사에서 가장 부정적인 이슈를 다룬 종교도 기독교였다.

주제어: 평화, 통일, 빅데이터 분석, 감성분석, 기독교

1. 서 론

2018년 들어 한반도 내 핵폐기 문제와 종전 관련 남북한의 왕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와 통일은 에큐메니칼 운동으로서의 현대 기독교 운동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은주, 2015).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통일선교에 대한 신학과 신앙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교회와 교단은 평화와 통일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경의 명령을 실천해왔다.

그러나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공산주의 세력 또는 반기독교적 인본주의 세력으로부터의 신앙생활의 보호를 강조한 나머지 평화적인 통일운동에 대해서도 일부 부정적인 인식 내지는 방해의 조짐이 있었고 (임희오, 2015), 반대로 평화나 통일을 지나치게 목적화하면서 모든 평화 또는 통일 운동에 면죄부를 주고, 과격한 실천 방법론을 우려하는 온건 기독교인들을 수구적 극단주의자로 평가하는 등 (이만열, 2016) 상호 갈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비록 한국 기독교인들은 광복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부문의 평화 및 통일 운동을 전개하여

한국사회 발전에 빠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김명배, 2017), 이러한 갈등 내지는 불일치는 언론의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신문 기사를 통해 나타난 언론의 해석 및 평가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독교의 그간의 행보를 잘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간의 기독교계에서 벌어진 평화 통일에 대한 담론과 운동, 상호 갈등 등이 언론 및 사회에 어떻게 비추어져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독교계의 평화 및 통일 운동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히 에큐메니칼 운동, 즉 사회 선교 활동으로서의 기독교계의 평화 및 통일 운동의 정체성을 중시할수록 이러한 분석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신문기사 등 기독교에 관련한 기록물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종교적 단일함과 정체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교회 및 기독교 단체의 활동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 역사기록은 기록 매체별로 문서, 사진, 도서, 박물관, 간행물, 마이크로필름 등이 있으며 기록 유형별로 일기, 보고서, 성경 및 각종 신앙서적, 신문기사, 회의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유진, 2017). 그중에서 신문기사는 언론사라는 공신력 있는 콘텐츠 생산자로부터 작성된 방대한 공개 기록으로서 그 가치가 크다. 또한 신문기사는 외부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창문이기도 하다. 또한 신문기사로부터 특정한 선입관이 형성 및 강화되고, 부정적 여론과 부당한 집단적 태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황우선, 2017). 이는 한국 언론의 신뢰성 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으며 (박종균, 2015), 신문기사의 기록물로서의 역할을 논할 때 고려할 점이다. 한마디로 신문기사는 그 해석의 정확성이나 평가의 공정성 시비 여부를 떠나 평화 및 통일이라는 두 주제를 대하는 현대 기독교의 행보의 역사를 꾸준히 관찰해 온 기록물로서 가치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현대 기독교의 평화 및 통일 관련 행보를 타 종교와 비교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기사의 건수, 기사의 공부정성, 기사의 키워드라고 하는 세 가지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1990년부터 지금까지의 종단적 고찰과 천주교 및 불교와의 비교 종교적 고찰을 수행하려고 한다. 이에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약 19년 간 네이버 뉴스 중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세 종교와 연관되어 평화 또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기사 제목에 포함된 기사만을 추출한 결과 총 111,578건 - 기독교 52,452건, 천주교 34,935건, 불교 24,191건 -의 기사를 말뭉치로 수집할 수 있었다.

## 2. 기독교의 평화 통일 운동

한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나 통일은 매우 바람직하고 회구하는 상태로 보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다. 특히 한반도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한민족의 번영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므로 그 당위성이 존재한다 (박삼경, 2015). 한반도 통일의 의미는 살림의 기독교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에 통일신학이 출현하기도 했는데, 통일신학은 “민족통일에 대한 신학적 성찰” 혹은 다양한 “통일운동에 대한 신학적 반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신옥수, 2009). 그리고 그 방법론의 전제는 평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일신학은 평화통일신학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평화통일신학의 주된 이념은 화해와 치유, 이웃 사랑, 생명공동체로 이루어진다(신옥수, 2015), 또한 한국교회는 “민족

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1988),7) “평화와 통일의 희년선언”(1995) 등을 통해 활발하게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해왔다.

그런데 한국 분단 현실이 구조적으로 한국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세우는 데 걸림돌이라고 보는 시각은 자칫 분단을 해결하는 것만을 강조하는 통일 만능주의가 되어 비성경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통일 이후의 한반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등한시하는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다.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치유와 일치를 이루면서 하나의 평화로운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박삼경, 2015).

한편, 한국 기독교계에서 평화에 대한 연구는 1982년 김성재의 “평화를 이루는 교육”을 필두로 하여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김성재, 1982). 평화는 통일만이 아니라, 다문화(오현성, 2009; 강문규, 2017), 생태 혹은 환경(옥필훈, 2015; 김승호, 2017), 세대 간 갈등 (구성모, 2015; 김정희, 2017), 경제 계급 간 갈등(곽호철, 2016), 성차별(강병오, 2017)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박경순, 2014). 그러나 과잉적인 평화주의는 성소수자, 성윤리, 종교다원주의 등에 대해서도 관대한 입장을 표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기독교의 평화 및 통일 운동에 대한 평가는 일부 연구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주관적으로 표출되어 온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개인의 정치적 성향, 신자유주의 또는 다원주의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매우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하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 연구 대상을 선택하기도 하며 기독교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해석과 판단은 연구자의 몫이라 하더라도 사실 관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될 것이다.

결국 현재의 기독교 운동에 대한 평가는 그 불가피한 주관성을 인정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기인해야 한다. 이는 기독교 운동에 대한 객관적 기록물의 수집 정리의 중요성을 말한다. 이에 작성자 및 답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자기 기술식의 설문조사법은 그 한계가 있으며 공개된 온라인 정보 원천을 근거로 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기초 통계 정보를 정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 3. 방법론

####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뉴스 기사를 수집하여 진행하였다. 뉴스 기사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Haystack API라는 검색엔진을 사용하였다. Haystack API는 금융 문서 검색 엔진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로 제공한다. 핵심 단어의 검색과 and, or, not 등의 논리 조건식, 수십 개의 단어 조합에 대한 검색 등 일반적인 뉴스 사이트 혹은 검색 포털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의 검색이 가능하다. Haystack API는 입력 파라미터 값이 존재한다. 파라미터 값에는 검색어, 검색결과에 포함되기 위한 최소 정확도, 한 페이지에 표시할 문서의 최대 개수, 페이지 번호, 검색 대상 날짜 범위 지정, 검색 본문 요약 여부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날짜 범위 지정을 1990년부터 조사 일시인 2018년8월까지로 하였다. 이어서 전체 기사에 대해 기독교의 경우 “기독교, 개신교, 목사, 목회자, 한기총”, 천주교의 경우 “구교, 천주교, 신부, 수녀, 교황, 성당”, 불교의 경우 “불교, 스님, 승려, 조계종, 사찰” 등의 단어와 “평화”, “통일”을 검색어로 하고 관련된 신문 기사를 수집하였다. ‘신자’, ‘신도’

등의 단어는 종교간 차별이 없어 자동분류가 불가능하므로 제외하였고, ‘중’, ‘절’, ‘종단’은 불교와 관련한 단어이나 동명이의어의 존재로 기사 검색 시 유효하지 않은 기사가 많이 검색되는 관계로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추출한 결과 총 111,578건 - 기독교 52,452건, 천주교 34,935건, 불교 24,191건-의 기사를 말뭉치로 수집할 수 있었다.

### 3.2 키워드 분석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세 종교관련 기사 범주에서 평화와 통일관 관련한 기사들로 이루어진 말뭉치로부터 정량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키워드 분석에 앞서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기사제목에 대해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형태소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R에서 지원하는 RHINO 패키지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RHINO에서는 결과로 도출되는 형태소의 종류를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옵션을 noun(일반명사, 고유명사, 대명사)과 verb(일반 동사, 형용사, 어근)로 설정하였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기사제목에 대한 noun(일반명사, 고유명사, 대명사)과 verb(일반 동사, 형용사, 어근)를 가지고 감성분석을 실시하였고 중립기사, 긍정기사, 부정 기사를 분류하였다.

키워드 분석은 중립 기사를 제외한 긍정 기사와 부정 기사를 대상으로만 실시하였다. 나누어진 기사를 바탕으로 날짜에 상관없이 종교별로 긍정 기사 단어의 말뭉치와 부정 기사 단어의 말뭉치를 형성하였다.

이어서 형성된 단어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에서 Haystack API 검색어로 사용되었던 “기독교, 개신교, 목사, 목회자, 한기총, 구교, 천주교, 신부, 수녀, 교황, 성당, 불교, 스님, 승려, 조계종, 사찰” 등의 단어는 제외하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 3.3 감성 분석

감성분석을 위해서는 사전에 감성분석 사전을 제작하였으며 수차례의 보완과 검증을 실시하여 그 분석 정확도를 높였다. 기사문에 특화된 감성사전을 제작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Haystack API로 신문 기사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긍정 또는 부정 성향의 기사 제목만을 파악하여 긍정성 또는 부정성을 유발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두 명의 encoder가 내용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이 단어들에 대해 일반 감성사전인 SentiWordNet3.0의 한글판에 등장하는 감성어와의 일치성 및 두 encoder 사이의 일치성을 유지하는 단어들을 일차 선정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사전 조사의 의미로 확보한 기사들에 대해 자동 감성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 후에 긍부정성이 잘 분류되지 않은 사례 (긍부정인데 그렇지 않다고 결과가 나온 사례 및 그 반대 사례)들만을 모아서 분류의 오류가 났거나 SentiWordNet3.0의 한글판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신문 기사 제목에서는 긍부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을 파악한 후 수정 보완했다. 예를 들어 “~한 꼴”, “~한 격”은 일반적으로 긍부정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신문기사에서는 주로 부정적 의미로 활용되고 있어 추가하였다. 또한 “에 나서다”, “이모저모” 등은 그 자체로는 긍부정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신문 기사 제목 등에서는 대부분 긍정적 기류의 기사에서 채택하는 단어이므로 추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신문기사 긍부정 단어로 긍정단어 927개와 부정단어 1,104개를 정했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긍부정 단어의 예는 다음 표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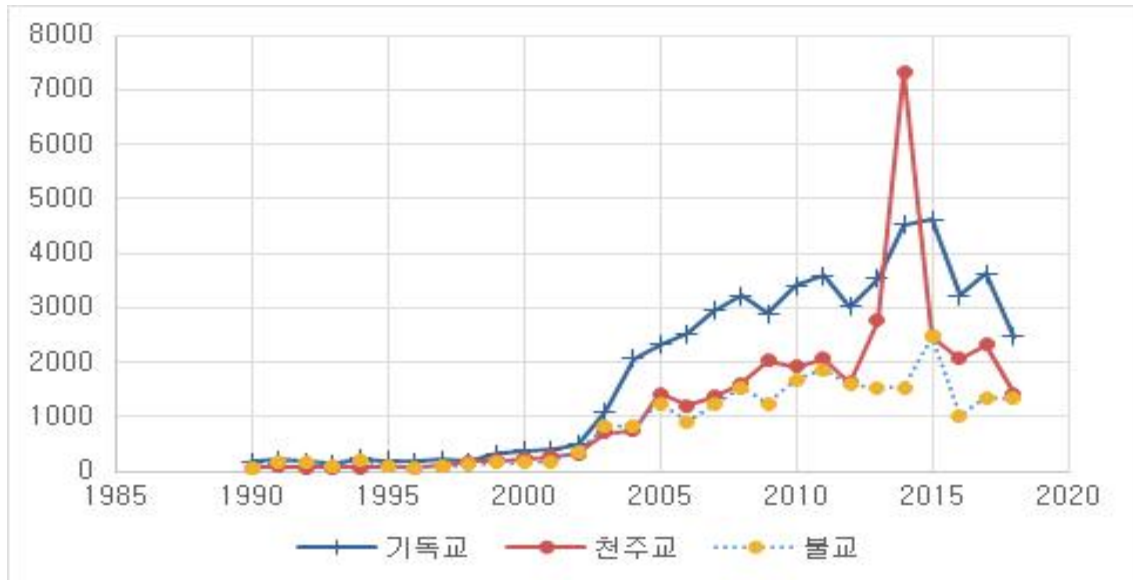
<표 1> 선정된 기사 전용 감성사전 일부

긍부정성	소속 단어 예
긍정적 단어	가르치, 가르침, 가치, 각광, 간명, 간원, 간증, 간판, 갈망, 갈채, 감격, 감동, 감미, 감사, 감탄, 감탄사, 갑질, 강인, 강인한, 개량, 개막, 개선, 개원, 개조, 개최, 개혁, 객관, 거장, 거창, 거침없이, 거행, 건강, 건립, 건설, 건의, 건장, 걸맞, 걸작, (중략), 호조, 홀리, 화려, 화합, 화해, 확립, 확신, 확실히, 확충, 환대, 환영, 환원, 환희, 활기, 활기차, 활력, 활발, 활성화, 회개, 회복, 회복기, 황재, 효과, 효능, 효력, 효율, 훈련, 훈훈, 훌륭한, 휴양, 흥겹, 희망, 희생, 힘차
부정적 단어	가난, 가로막, 가슴앓이, 가시, 가식, 가증, 가짜, 간담, 간염, 간질, 간질이, 갈기갈기, 감기, 감소, 강간, 강도, 강요, 강제적, 강행, 개독, 개싸움, 개인주의, 개탄, 거드름, 거머리, 거무스름, 거무죽죽, 거부, 거스러미, 거절, 거짓, 거짓말, 거품, 건방지, 건조, 검, 검정, 걸잡기, 게을리, 격, (중략), 현혹, 혈중, 혐오, 혐의, 협박, 협잡, 협착, 형, 호색, 혼돈, 혼동, 혼란, 혼잡, 화, 화류, 화상, 화장대, 화재, 환각, 환각제, 환락, 환멸, 황달, 황당, 황량, 황폐, 회의적, 횡령, 횡포, 후두염, 후진, 후회, 훼손, 휘몰아치, 휘어지, 흐릿, 흐트러, 흑색, 힘들

#### 4. 결과

##### 4.1 빈도 분석

먼저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1과 같이 199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9년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세 종교에 평화 또는 통일과 관련된 기사의 총수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기독교에서 평화 또는 통일 담론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세 종교 모두 전체적으로 시간에 지남에 따라 기사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로 인터넷 뉴스에 증가와 신문사에 증가에 의한 이유로 보인다. 셋째, 그림 1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14년도의 천주교 관련 기사건수이다. 세 종교를 통틀어 7,327건으로 가장 높은 기사 건수를 보이고 있다. 타종교와 비교해 보아도 기독교가 가장 높은 기록을 보이는 2015년도에 4,624건과 불교에 가장 높은 기록을 보이는 2015년도에 2,479건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천주교가 2014년도에 월등히 높은 기사 건수를 기록한 이유는 2014년 8월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한하는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4년 8월에 기사 건수는 3,842건으로 2014년 전체 기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사에 주요 내용들은 교황이 방한하여 평화를 이야기하며 행했던 거취들이다. 한편 교황이 그해 4월에 발발한 세월호사건의 유가족들을 만나 애도하고 쌍용차 해고인 들을 만나 위로하는 등에 거취를 보임으로써 관련 기사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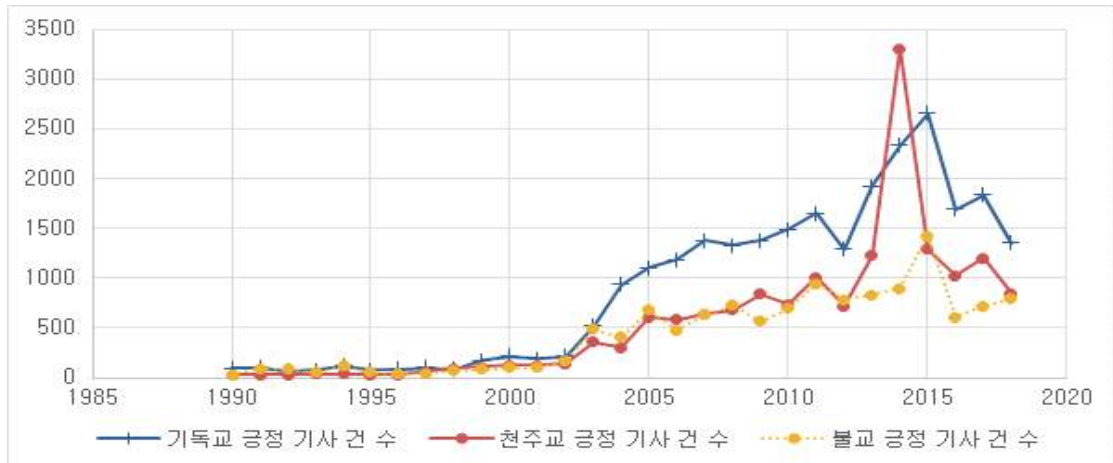


〈그림 1〉 주요 종교별 평화, 통일 기사 건수

#### 4.2 감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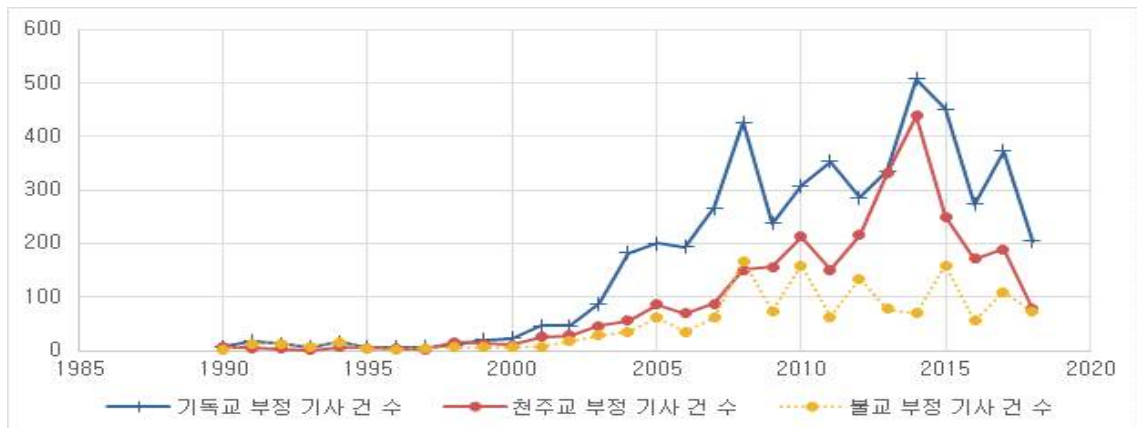
빈도분석의 기반이 되는 말뭉치에 대해 형태소분석 및 전처리 후 키워드 분석과 감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는 평화, 통일 주제 내에서 다양한 소주제가 시간대별로 변천해 왔는지를 보아 관심사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신문사별로 종교적 편향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신문사별과 종교별로 긍정기사와 부정기사의 빈도수를 도출하였다. 그림2는 199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9년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세 종교에 평화 또는 통일과 관련된 기사에 긍정 기사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기사 건수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사 건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가 2014년에 가장 높은 긍정기사 건수를 보이는 것은 프란체스코 교황에 방한과 더불어 행해졌던 선행에 거취 때문이다. 기독교는 2015년에 2,652건으로 가장 많은 긍정 기사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8월이 451건으로 2015년에서 기록된 2,652건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나타났다. 또한 2015년 8월에 기록된 451건은 기독교 긍정기사 344개월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2015년 8월에 기록된 기사 중에 대부분이 “8월9일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외에 기사들에 대부분도 “한반도 평화”, “기도”등에 관련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불교는 2015년에 가장 많은 긍정기사 건수로 1,423건수를 기록하였다. 불교 긍정기사 건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1,000건을 넘기는 해이다. 2015년에 가장 많은 긍정기사 건수를 기록한 이유는 가장 많은 총 기사 건수가 수집된 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 2015년 3월에는 “불교계, 광복 70주년 맞아 합동법회 개최 합의”, 11월에는 “영통사 복원 10주년 기념 평화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 “조계종 평화집회 이끈다…2차 대규모집회 동참 ” 등의 다양한 평화, 통일 관련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림 2〉 주요 종교별 평화, 통일 관련 긍정 기사 건수

그림3은 199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9년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세 종교에 평화 또는 통일과 관련된 기사 중 부정 기사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많은 부정 기사 건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 부정기사건수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14년 12월에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코리아연대가 검찰 압수수색 진행되는 사건과 2015년 12월에 북한 공작원 만나 정세 보고한 목사가 구속되는 사건 등이 이유로 나타났다. 천주교 부정기사 건수가 가장 많은 2014년은 교황이 방한하는 사건과 더불어 기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불교는 전체적으로 부정 기사 건수가 가장 적다.



〈그림 3〉 주요 종교별 평화, 통일 관련 부정 기사 건수

한편 표2를 보면 전체 기사 중에서 긍정기사의 경우 절대 건수로는 기독교가 가장 많으나, 불교권 기사는 좀 더 긍정적 기사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실리고 또한 부정 기사도 가장 적은 비중으로 실리는 등 언론사에서 가장 친화적으로 기사를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 종교 전반에 걸쳐 언론은 긍정기사를 부정기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게재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표 2〉 주요 종교별 평화, 통일 이슈 관련 감성 분석 결과  
(1990년~2018년9월)

분류	기독교	천주교	불교
총 기사 건수 (건)	52,452	34,935	24,191
총 긍정기사 건수 (건)	25,682 (49.0%)	16,266 (46.6%)	12,713 (52.6%)
총 부정기사 건수 (건)	4,914 (9.4%)	2,821 (8.1%)	1,469 (6.1%)

Note: 단 총 건수와 긍정기사 및 부정기사 건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기사들 중 일부는 긍정이나 부정적 기사가 아닌 것들도 있기 때문임. 괄호안의 %는 해당 종교 내 전체 기사 중 긍정 또는 부정 기사의 비중임

또한 종교별 언론사별 감성분석을 비교분석을 통해 종교별로 편향적인 기사가 제작 노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신문사는 방송3사인 KBS, MBC, SBS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오마이뉴스, 한겨레 이상 8개의 신문사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3과 같이 신문사별 종교별로 서로 다른 빈도가 도출되었으나 전체적으로 긍정기사 건수가 부정기사 건수보다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지상파 방송사를 비교해보면 KBS에 비해 MBC, SBS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더 많이 노출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MBC의 경우 타종교에 비해 거의 세배나 많은 비중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노출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 중앙, 동아 등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언론사에서는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진보적 언론사에 비해 부정적 기사를 덜 노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수적 언론사에서도 중앙일보를 제외하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시키고 있다.

〈표 3〉 언론사별 종교별 평화, 통일 관련 기사 건수  
(괄호 안은 총건 수 대비 비율)

		기독교	천주교	불교
KBS	총건 수	313	448	194
	긍정	157 (50.1)	262 (58.4)	121 (62.3)
	부정	47 (15.0)	32 (7.1)	15 (7.7)
MBC	총건 수	149	235	97
	긍정	52 (34.8)	112 (47.6)	40 (41.2)
	부정	27 (18.1)	16 (6.8)	6 (6.1)
SBS	총건 수	383	544	221
	긍정	149 (38.9)	282 (51.8)	106 (47.9)
	부정	70 (18.2)	50 (9.1)	14 (6.3)
동아일보	총건 수	1,242	913	734
	긍정	562 (45.2)	410 (44.9)	353 (48)
	부정	126 (10.1)	65 (7.1)	46 (6.2)
오마이뉴스	총건 수	1,620	1,302	752
	긍정	515 (31.7)	415 (31.8)	295 (39.2)



	부정	224 (13.8)	151 (11.5)	80 (10.6)
조선일보	총건 수	205	135	97
	긍정	103 (50.2)	68 (50.3)	55 (56.7)
	부정	18 (8.7)	7 (5.1)	5 (5.1)
중앙일보	총건 수	302	193	158
	긍정	151 (50.0)	86 (44.5)	86 (54.4)
	부정	23 (7.6)	28 (14.5)	12 (7.5)
한겨레신문	총건 수	2,592	1,559	1,084
	긍정	1,004 (38.7)	648 (41.5)	482 (44.4)
	부정	278 (10.7)	173 (11.0)	71 (6.5)

### 4.3 주제 분석

기사 발생 건수와 긍부정성에 대한 보다 더 심층적 분석을 위해 평화와 통일 각각에 대해 주제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4는 종교별 평화, 통일 관련 긍정기사 제목에서 등장빈도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의 키워드이다. 키워드는 기사검색어로 쓰였던 기독교, 목사, 목회자, 한기총, 교회, 천주교, 신부, 수녀, 성당, 불교, 스님, 승려, 사찰”등은 제외하고 등장빈도가 높은 10개의 키워드를 산출하였다. 종교별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 세계, 한반도, 축구, 대회, 개최 등에 키워드는 2개 이상의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이다.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예배, 운동, 기도회, 연합 등에 키워드가 단독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배와 기도회는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에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대회는 “기독교계인사 범민족대회”, “범민족대회 준비위 통일 문화축전 추진”, “남북 기독교계, 한반도 평화대회 개최 합의”등에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대회 기사가 빈도가 높은 이유로 파악된다. 연합이라는 키워드는 운동과 기도회에 함께 쓰이는 빈도가 높아 도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천주교에서는 교황, 종교, 미사, 프란체스코, 추기경, 화해, 대통령, 메시지라는 키워드가 단독적으로 등장하였다. 교황, 종교, 미사, 프란체스코, 추기경은 기독교에 기도회, 예배와 마찬가지로 천주교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에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화해는 “천주교, 남북 인터넷 화해소 개설 제안”, “천주교 민족화해센터 기공식”, “민족화해와 통일기원 미사”등에 기사 빈도가 높은 것이 이유로 파악된다. 대통령이라는 키워드는 천주교와 관련해서 “노 대통령, 발터 카스퍼 추기경 접견”, “노 대통령, 다음 달 스페인·교황청·이탈리아 방문”, “李대통령, 교황 시복식에 축하서한 보내”등 대통령이 천주교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관련된 행보에 관한 기사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메시지는 “천주교 민족 화해 일치 위한 기도의 날 메시지 발표”, “김추기경 마지막 메시지 사랑, 평화, 화해”, “교황, 부활절 메시지서 평화와 결속 강조” 기사에 의한 키워드인데 천주교는 기독교와 불교와는 달리 공식적인 행동이나 말을 전달할 때 메시지라는 표현을 타 종교에 비해 많이 쓰는 것으로 파악된다. 불교는 기원, 법회, 핵, 생명이 타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는 키워드이다. 기원과 법회는 기독교와 천주교에도 자신에 종교와 밀접한 키워드가 있듯이 불교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키워드다. 기원과 법회는 “남북 불교계 `평화통일 기원법회` 공동개최 합의”, “남북 불교계 `평화통일 기원법회` 공동개최 합의”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자주 같이 등장하는 키워드이다. 핵은 불교기사에서

“원불교 탈핵, 생명평화순례 100회…20일 기념행사”, “조계종 북한 핵개발 포기·평화실현 나서야”와 기사에서 등장한다. 기사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불교는 대부분 평화의 관점에서 북 핵을 바라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은 “생명평화 민족화해 지리산 위령제”, “도법스님 내달부터 생명평화 탁발순례”와 같이 평화라는 검색어와 같이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종교별 평화, 통일 관련 긍정기사 상위10개 키워드

기독교	등장 빈도	천주교	등장 빈도	불교	등장 빈도
한국	1746	교황	3952	한반도	703
예배	1256	종교	1452	대회	668
운동	1251	미사	1227	세계	588
세계	1111	프란체스코	813	기원	561
개최	1038	추기경	751	핵	471
기도회	1033	한반도	750	법회	464
한반도	1011	화해	732	생명	449
연합	935	축구	690	조계종	449
축구	859	대통령	660	개최	446
대회	852	메시지	608	축구	400

다음으로 표5는 종교별 평화, 통일 관련 긍정기사 제목에서 등장빈도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의 키워드이다. 키워드는 기사검색어로 쓰였던 기독교, 목사, 목회자, 한기총, 교회, 천주교, 신부, 수녀, 성당, 불교, 스님, 승려, 사찰”등은 제외하고 등장빈도가 높은 10개의 키워드를 산출하였다. 논란, 규탄, 사태, 한국, 종합, 경찰은 두 가지 종교 이상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키워드이다. 기독교에서만 등장하는 부정 기사 키워드로는 사망, 충돌, 테러, 단체 등이 있다. 사망은“김정일 사망 한기총 남과 북 화해하는 계기돼야”, ”北 강영섭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사망“과 같은 기독교와 남북관련 인사에 사망소식을 담은 기사제목 등에 의해 도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서 충돌은 ”교회협 남북 군사적 충돌·대북확성기방송 중단해야“,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마라…군사충돌 무서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부와 충돌”등에 기독교단체가 언급하거나 직접 충돌하는 기사에 의한 키워드로 파악된다. 테러 및 단체라는 키워드는 기독교 단체가 남북관계에 개입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 기사제목 의해 도출되었다. 테러는 납북과는 무관하게 평화를 깨는 행위로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테러 기사 제목에 의한 키워드로 파악된다.

천주교에서만 등장하는 부정기사 상위키워드는 종교, 미사, 해군, 기지, 제주, 시국, 세월호가 있다. 종교는 천주교에 큰 개념으로 같이 도출되는 키워드로 파악된다. 반대로 미사는 천주교에서 행해지는 의식으로 천주교에 속하는 개념으로 같이 도출되는 키워드로 파악된다. 이어서 제주, 해군, 기지는 함께 기사제목에 등장하는 키워드이다. “제주해군기지반대 수녀 등 29명 연행(종합)”과 같은 제주해군기지에 관련된 논쟁과 대립에 의한 기사제목 의한 키워드로 파악된다. 세월호는 2014년에 큰 사건으로 기록되어 당시에

부정적 기사제목으로 많은 기사가 생성되었고, 시국은 ”고함에 목살잡이…보수인사들, 거제성당 시국미사 난동“이라는 시국미사사건 기사에 의해 도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불교에서만 등장하는 상위 부정기사 키워드는 편향, 정부, 조사, 핵, 불법이 있다. 핵은 불교 긍정기사에 상위키워드에서도 도출되었다. 핵과 관련된 불교의 기사가 많이 생성되었고 또한 긍정기사의 수도 함께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작은 수지만 부정제목을 가진 기사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편향과 정부는 기사제목에서 같이 등장하는데 정부가 종교 편향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교에 입장을 담은 기사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와 불법은 스님이나 불교관련 종교인이 범죄를 행함으로써 생성되는 기사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5〉 종교별 평화, 통일 관련 부정기사 상위10개 키워드

기독교	등장 빈도	천주교	등장 빈도	불교	등장 빈도
사망	278	논란	161	편향	72
논란	267	종교	161	논란	71
사태	187	미사	158	정부	70
한국	164	해군	141	규탄	67
종합	163	기지	139	조사	66
총돌	161	제주	132	경찰	60
규탄	157	종합	117	사태	58
테러	154	시국	112	핵	55
단체	146	세월호	105	한국	54
경찰	131	규탄	99	불법	49

다음은 주제별로 해당 키워드들의 긍부정성을 종교별로 종합해 보았다. 각 주제에 대해서 어떤 종교에 더 특징적인 키워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TF(Term Frequency) 또는 TF-IDF의 경우 종교별로 전체 기사수 차이(기독교 > 천주교 > 불교)가 크기 때문에 왜곡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 종교 기사에는 등장하나 타종교 기사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것이 특징적 키워드로 보기에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표6과 같이 통일, 시국/인권, 사회/경제, 국제, 지역의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긍정기사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를 파악하였다. 통일 주제의 경우 기독교는 타종교에 비해 북한 인권과 평화 유지 활동에 더 두드러지게 기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천주교는 군사 이슈(사드, 기지 등) 이슈에 더 많이 기사화되었다. 시국/인권의 경우 기독교는 탈북자, 자유, 내전, 난민 등 비교적 보수적 분야에, 천주교의 경우 쌍용차, 촛불, 원전, 강정, 국보법 등 상대적으로 진보적 분야에 더 많이 기사화되었다. 사회/경제 주제의 경우에는 기독교 관련 기사에 환경, 여성, 테러, 난민 등이, 천주교에서는 가정, 원전, 장애인, 유족 등이 특징적 단어였다. 국제 주제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 키워드에서 기독교 기사가 많았다. 이에 비해 천주교는 로마, 바티칸 등 교황청 관련 단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등장하였다. 이는 기독교가 세계 선교에 가장 활발한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지역

주제의 경우에는 국제 주제와는 달리 대부분의 지역은 천주교 관련 기사에서 많이 등장하였다.

한편 표7은 다섯 가지 주제에 속하는 키워드들이 등장하는 기사의 수와 긍부정성에 대해 요약한 것이다. 긍부정성의 경우 주제에 속하는 기사를 종교별로 분류한 후에 (긍정기사의 수 - 부정기사의 수) / 전체기사의 수라는 공식으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전체 기독교의 경우 시국/인권, 사회/경제, 국제, 지역 이슈 등 거의 전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긍정기사가 등장하였다. 이에 비해 불교는 통일 이슈에서 가장 많은 긍정기사가 있었다. 또한 긍부정성을 보면 기독교의 경우 통일 이슈, 천주교의 경우 사회/경제 분야에서만 긍부정도가 가장 높는데 비해 불교의 경우 나머지 분야에서 모두 긍부정성이 가장 높았다.

〈표 6〉 긍정기사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 (IDF기준)

주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
통일	핵, 억류, 북한, 북, 방북, 남북, 평양, 판문점, 탈북자, 임진각, 애기봉, 대북, 금강산	안보, 사드, 기지	통일부, 분단, 북녘, 개성
시국/인권	탄압, 노동자, 구속, 추모, 집회, 진보, 중북, 정당, 정권, 전쟁, 의회, 시위, 선거, 법정, 민주화, 대통령, 대선, 국회, 국보법, 탈북자, 억류, 할머니, 철거, 차별, 자유, 여성, 소녀, 생명, 내전, 난민	쌍용차, 투쟁, 추모, 촛불, 청와대, 원전, 국보법, 경찰, 강정, 장애인, 인권	단식, 분신
사회/경제	환경, 구속, 법정, 여성, 테러, 수사, 무기, 난사, 난민	가정, 원전, 쌍용차, 투쟁, 경찰, 장애인, 평화상, 유족, 유가족	분신
국제	내전, 프랑스, 과병, 트럼프, 중동, 중국, 일본, 이집트, 이슬람, 이스라엘, 이라크, 유럽, 워싱턴, 예루살렘, 아프리카, 아프간, 아시아, 시리아, 세계, 선교, 미국, 무슬림, 독일	사드, 테레사, 외교, 수단, 바티칸, 로마	미군, 지구촌, 일본인, 유엔, 국제
지역	인천	평창, 강정, 지리산, 제주, 소록도, 부산, 대구, 광주	서울, 강원

〈표 6〉 긍정기사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 (IDF기준)

주제	키워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빈도	긍부정성	빈도	긍부정성	빈도	긍부정성
통일	핵, 해군, 평양, 판문점, 통일장, 통일부, 통일기, 탈북자, 천안함, 임진각, 억류, 애기봉, 안보, 사찰, 사드, 분단, 북한, 북미, 북녘, 북, 방북, 방북, 미군,	265	0.34	173	0.18	341	0.22

	대북, 남북, 김정일, 기지, 금강산, 개성						
시국/ 인권	탄압, 쌍용차, 노동자, 구속, 사찰, 투쟁, 탄핵, 추모, 촛불, 청와대, 집회, 집회, 진보, 중북, 정당, 정권, 전쟁, 의회, 원전, 시위, 시국, 세월호, 선거, 법정, 민주화, 민주당, 대통령, 대선, 단식, 국회, 국정원, 국보법, 광화문, 경찰, 검찰, 강정, 탈북자, 억류, 할머니, 학살, 피해자, 철거, 차별, 장애인, 자유, 인권, 위안부, 여성, 식량, 소녀, 생명, 사형, 분신, 내전, 난민	1,227	0.21	799	0.18	525	0.25
사회/ 경제	가정, 원전, 환경, 쌍용차, 구속, 투쟁, 법정, 경찰, 검찰, 억류, 학살, 장애인, 여성, 분신, 평화상, 테러, 참사, 유혈, 유족, 유가족, 수사, 분쟁, 무장, 무기, 동성애, 난사, 식량, 난민	307	-0.07	216	-0.01	77	-0.05
국제	달라이, 내전, 사드, 미군, 프랑스, 파병, 티베트, 트럼프, 테레사, 지구촌, 중동, 중국, 일본인, 일본, 이집트, 이슬람, 이스라엘, 이라크, 유엔, 유럽, 워싱턴, 오르단, 외교, 예루살렘, 아프리카, 아프간, 아시아, 시리아, 수단, 세계, 선교, 부시, 베를린, 바티칸, 미얀마, 미국, 무슬림, 로마, 동북아, 독일, 뉴욕, 글로벌, 국제, 교황청	426	0.20	164	0.33	94	0.43
지역	평창, 강정, 지리산, 제주, 전북, 인천, 소록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강원	93	0.31	76	0.28	25	0.32

## 5. 토의

### 5.1 주요결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사의 빈도나 긍부정성을 토대로 할 때, 평화 및 통일 분야에서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보수적 이슈, 천주교는 진보적 이슈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향은 보수적 언론과 진보적 언론이 각각 기독교 및 천주교에 대해 바라보는 자세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독교는 천주교 및 불교에 비해서 국제적 이슈에서 적극성을 보인다. 이는 세계

선교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 봉사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황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생활형 복지 봉사에 대해 기독교는 잘 나타내지 않는 등 전략적인 언론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천주교는 다소 정치적인 이슈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기독교에서도 국내 선교의 영역을 여전히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현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기사의 긍부정성으로 볼 때 불교계는 상당히 많은 이슈에서 긍정적인 기사가 등장하였다. 이것의 원인이 불교계의 활동의 우수성일수도 대언론 활동의 적극성일수도 있지만 언론에 긍정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여론의 형성과 그 종교에 대한 친밀성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넷째,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보수적 언론기관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일, 북한 등 세계 인권, 자유 등 보수적 가치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보수와 진보의 어느 하나로 소속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균형적인 가치이므로 보수적, 진보적 언론 기관 모두에서 존중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이나 기독교계가 저지른 악행이나 부족함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수용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언론이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폄훼하려거나 정당한 기독교적 가치를 평하거나 비판한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할 일이지 언론으로부터의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 기독교적 가치를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사화의 가치가 적어보이는 교회의 화재나 손괴, 기독교인의 인명사고에 대한 소식이 자주 부정적인 기류로 기사화되는 것은 다소나마 폄훼 의도가 있다는 판단 외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다.

## 5.2 시사점 및 공헌

첫째, 기사 내용을 전수 조사하여 기독교의 평화 및 통일 이슈 관련 활동과 언론 또는 여론으로부터의 평가를 실증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량적으로 비교한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다른 연관 연구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기독교가 평화 및 통일 이슈에서도 언론에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는 현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독교는 그동안 언론에 바로 비추어지도록 하기 위한 언론, 특히 진보 성향의 언론과의 관계성 정립에 비교적 소홀히 한 면도 있어 보인다. 한편으로는 기독교에 대해 가십 위주의 기사를 편파적으로 게재한다거나 종교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교회 활동을 비판하는 등 기독교적 가치를 폄훼하기 위한 의도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평화 및 통일 관련 기사를 비교 분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진행된 종교별 비교연구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미흡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Haystack API를 사용하여 신문기사라는 특정 매체를 통하여 평화 및

통일이라는 이슈와 관련하여 3개 종교가 여론에 평가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에 평화 및 통일이 아닌 다른 이슈를 중심으로 한 종교별 비교연구를 진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종교별로 기사제목에 대해서 감성분석을 실시하고 등장 빈도가 높은 상위키워드를 도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상위키워드가 등장한 이유를 빈도가 높은 기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종교별로 공통된 단어가 있는지와 차별된 단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종교별로 차별되게 도출된 키워드를 통해서 종교별 평화 및 통일과 관련하여 수집된 많은 양의 기사를 요약하여 보여 줄 수 있고 향후에 종교별 평화 및 통일 키워드 탐색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평화 및 통일에 대한 기독교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 간의 관계성, 사회적 집단 간의 갈등은 모두 평화 교육의 대상이 되는데 신문기사는 이러한 교육의 좋은 사례를 풍부하게 제공해 준다. 여기에서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은 전체 사례에 대한 요약, 패턴, 추세 등을 결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례의 숲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 5.3 추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실증 분석대상으로 Haystack을 통해 수집된 인터넷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하지만 2000년 이전 뉴스의 빈도가 2000년 이후 빈도보다 다소 부족하여 2000년 이전 기사에 연도별, 신문사별 비교연구에 있어 다소 아쉬웠다. 또한 종교별, 감성별 키워드를 도출하기 위해 TF, IDF, TF-IDF값 등을 사용하였으나 단어들 간에 관계를 분석하거나 명확한 주제를 도출하는 분석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향후 몇 가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추출된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co-occurrence network를 형성하는 분석을 실시하여 종교별, 감성별과 같은 주제별 단어들 간에 관계를 파악하는 것과 같은 여러 관점에서 단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기사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진 기사 본문의 의미구조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단어들에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토픽모델링 연구도 필요하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특정 주제에 관한 문헌에서는 주제에 관한 단어가 다른 단어들에 비해 더 자주 등장하는 등에 의미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6. 결론

신문기사는 역사의 기록이자 당시의 여론의 산물이다. 신문기사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평가를 바탕으로 특정 시대, 사회, 그리고 언론기관의 기독교에 대한 시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찰과 대응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한국 기독교 현대사를 신문기사에서 읽어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1990년 신문기사가 온라인화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에 관련한 기사를 기사제목의 수준에서 수집하였으며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기법인 키워드 추출, 감성 분석, 주제 분석 등을 수행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또한 천주교와 불교 등 대표적 종교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향후에는 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추가적인 시사점과 전략, 대응 방안 등이 도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문규. (2017). 현대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모색-마리아 해리스 (Maria Harris) 의 기독교교육 이론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56, 545-575.
- 강병오, & 박혜림. (2017). 포스트모던 시대 선교 상황 하의 성윤리 의식 조사 연구: 결혼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목회자와 평신도 인식을 중심으로. 선교신학, 47, 13-53.
- 곽호철. (2016). 신자유주의의 기독교적 한 대안. 신학논단, 83, 121-154.
- 구성모. (2015). 일반: 재미 한인 사회 세대 간의 문화적 갈등과 선교적 케어. 한국개혁신학, 45, 154-178.
- 김명배. (2017). 한국교회 사회참여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1970 년부터 2000 년까지. 기독교사회윤리, 37, 49-77.
- 김성재 (1982). 평화를 이루는 교육. 기독교사상, 26권 8호, 69-79.
- 김승호. (2017). 생태계 위기와 한국교회의 과제. 신학과 목회, 47, 73-91.
- 김정희. (2017). 노인부양의 공적 책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신학논단, 88, 55-83.
- 박경순. (2014). 한국의 기독교평화교육의 연구경향과 미래적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40, 13-46.
- 박삼경. (2015). 한반도 남북통일과 평화윤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8, 203-228.
- 박종균. (2015). 한국 언론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대안 모색. 기독교사회윤리, 33, 37-73.
- 신옥수. (2015). 평화통일신학의 형성과 과제. 선교와 신학, 35, 13-48.
- 신옥수. "통일신학의 어제와 오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1 (2009).
- 오현선. (2009). 다문화 사회에서 '차이'를 '차별'화하는 폭력성의 극복을 위한 기독교 평화교육의 한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20, 301-328.
- 옥필훈. (2015). 생태계 회복을 위한 기독교 환경운동과 선교신학적 발전과제. 종교문화학보, 12, 5-44.
- 이만열. (2016). 분단 70 년, 한국 기독교의 성찰과 반성. 한국기독교와 역사, (44), 5-25.
- 이유진, & 윤은하. (2017). 기독교 역사기록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술규칙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1), 1-30.
- 이은주. (2015). 에큐메니칼 학습으로서의 기독교 평화통일교육 정립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44, 273-305.
- 임희모. (2015). 남북한 분단체제와 평화통일운동으로서의 선교. 선교와 신학, 35, 117-158.



황우선, & 김성해. (2015). 프레임 분석을 통해서 본 언론의 규범적 가치와 실제: 아프간 선교단체 피랍사건 보도에 나타난 편향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6(1), 83-109.